

포커스 '북텐트'로 즐긴 '익산 북페스티벌' 인기

텐트 속에서 즐기는 문학... 책읽는 도시로 한걸음 더

유튜브로 즐기는 방구석 체험
비대면 신개념 북텐트 도입

익산=고운영 기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2021 익산 북페스티벌'이 마무리됐다.

지난 15일부터 이틀동안 열린 이번 북페스티벌은 '익산, 책머들다'라는 주제로 위드코로나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개념 '북텐트'를 도입했다.

또한 유튜브로 즐기는 방구석 체험 등 차별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시가 주최하고 시작은도서관협의회, 익산작은도서관연합회와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2021 익산 북페스티벌'은 영등도서관 주차장에 북텐트를 설치해 2인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북텐트 속 바구니에 손소독제, 간식, 책

등이 마련돼 텐트 속에서 개막식과 문화공연 및 강연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북텐트는 1m 이상 간격으로 설치돼 참여자 간 거리를 두었고, 북텐트를 활용한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 접수와 시간제 운영으로 해당 49명의 제한된 인원만으로 운영했다.

15일에는 시 풍물단의 개막 공연에 이은 개막식에서는 책읽는 가족 및 환경의 책 독후감 공모전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2021 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된 『유원』의 백은유 작가와 시 중학생 3인이 북토크를 나누었다.

이후 2021 익산시 환경의 책으로 선정된 『천개의 파랑』의 작가 선란 북콘서트에는 원광대학교 김정배 교수의 진행과 인문밴드 레이가 함께해 가을밤 책머드는 시간으로 가득채웠다.

16일에는 지역작가와 함께 하는 북토크, 인형극 『우리들이 개를 지키려는 이유』의 에도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의 재미있는 오해와 상식을 클래식 음악으로 풀어보는 '신이나는 클래식'이 올해 북페스티벌을 통해 처음 선보였다.



사전 신청을 통해 25가족이 참여한 환경의 책 가족독서골든벨은 북텐트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독서 지식을 겨루는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었으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노련한 강연은 북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독서습관 길들이기 프로젝트인 '1130 독서습관 프로젝트', 시 독서동아리가 추천한 도서를 전시하는 '책은 언제나 옳다', 시 10개 도서관을 돌아보

는 스탬프 투어인 '도서관 테마 기행'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에서 10월 말까지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는 북페스티벌을 통해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시민들이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책을 통해 공감하고, 위로받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이번 축제 분위기를 이어 받아 책 읽는 도시 분위기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교육지원청, 마음건강 치유 뮤지컬

장수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이 높은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힘으로 마음건강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해 '바두, 예술: 몸짓 프로젝트-뮤지컬 판타스틱 엘리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14일 장수초등학교 강당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세계소리축제 기획팀'과 협업을 통해 마련한 수준 높은 무대였다.

발레, 스트리트 댄스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용 예술과 생생한 음악, 화려한 조명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했으며,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가치와 의미를 담아 깊은 철학적 사유의 기회도 제공했다. /정수=유기종 기자



장수군-전북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장수군과 함께하는 2021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2021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은 전북생활문화협의회가 주최하고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가 주관해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수군민의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3시간 동안 유튜브로 진행되며 논개 무용단, 파랑새중창단, 한누리악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수=유기종 기자



고창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 농·어촌 아이돌봄 모범사례

고창군 상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농·어촌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의 모범사례로 뜨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옛 상하면 복지회관을 최적의 돌봄 공간으로 리모델링 이후 센터장과 돌봄교사를 배치해 아이돌봄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다양한 체험과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

상하면은 농가 912호, 어가 89호로 농·어업이 혼합된 지역으로써 생업으로 바쁜 보호자들의 양육 부담감을 덜고 아이들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고창=안병철 기자



백제클럽·해병전우회 등 헌혈 봉사

익산지역 15개 라이온스클럽과 해병전우회, 수협 임직원 등 봉사단체 회원들은 지난 14일 익산 백제 라이온스클럽 사무실 앞에서 사랑의 헌혈봉사를 펼쳤다.

김동근 총재는 이 행사에 동참해 위로와 격려를 했으며 인사에서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감염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귀중한 생명살리기 위한 사랑의 헌혈 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 라이온의 위상을 널리 떨쳐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역사학자가 부른 노래, 김재영 앨범 출판

한 역사학자가 자신의 사비를 들여 정음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한 음반을 내 화제다. 음반에는 '항기로 만나자'를 비롯한 '행고를 정음', 2019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을 노래한 '무성서원', 막걸리를 예찬한 '아무튼 정음 막걸리', '녹두꽃 피던 그 자리' 등 총 5곡이 실려 있다.



이 음반을 기획자하고 작사에 직접 노래한 정음역사문화연구소의 김재영 이사장은 30년 동안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한 실증사학으로 다져진 정통파 학자이다.

그는 무성서원이 있는 원촌마을에서 태어나 최치원이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즐겼다는 유상대가 있는 동편마을에서 자랐다. 이러한 성장기의 주변 환경과 역사적인 배경이 알게 모르게 작가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소장은 오래전부터 정음의 역사문화를 가사로 한 음반을 내고 싶었다며 총 다섯 곡 중 한 곡은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배를 편야에 서서 전봉준을 회상하는 가사로 본인이 직접 노래하고, 나머지 네 곡은 자신이 쓴 가사를 현재 활동하는 가수들에게 부르게 했다.

/정음=박기수 기자



임실군청 공무원노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1위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 공무원노조를 대상으로 실시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하여 최고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임실군청 공무원노조는 전국에서 응모 및 참여한 9개 노조 중 1위에 해당하는 최고상을 수상했다.

공무원노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전국 63개 노조를 대표하여 공무원노조의 합리적 우수성과 제도개선 사례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고 전파하기 위해 이뤄진 행사이다.

발표자로 나선 김진환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수사례로 '약성 언론, 약성 민원'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김진환 위원장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가짜뉴스와 비관 기사 협박 등이 군에서 벌어진 상황을 주시하며 조합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임실군 행정과 같이 대응하여 공직사회의 미온적 대응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은 약성 민원과 관련하여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민원 대응 사태를 대비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 모두의 인권은 동등하며 보호받을 의무가 있기에 조례로 보호받을 의무를 최근 제정하였다. /임실=박기수 기자

김제시, 다자녀 가족과 교감 콘서트 "가족의 가치 찾아"

국악과 월드뮤직, 댄스 등 다채로운 연출
박준배 김제시장, "가족친화적 가치관 정립되길"

김제시 16일, 지역 회계관 공간에서 다자녀 가족들과 비대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화 읽어주는 콘서트를 열고 가족간의 정서적 교감을 꾸려 큰 호응을 얻었다.

방구석머리의 전래동화 콘서트를 통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여'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뒀다. 이 공연은 배우들이 직접 연주를 시작으로 국악과 월드뮤직, 드라마와 댄스 등의 다채로운 연출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감과 큰 기쁨을 안겼다.

아울러 김제만경농공단지에서 구조물을 생산하는 제이엔에스 엔지니어링 임산부대표의 300만원 기타로 아이낳기 좋은세상운동본부 추천으로 모범 다자녀 10세대에 30만원씩 후원금이 전달되기도 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4명의 수치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 콘서트를 통해



가족의 가치, 일상생활의 균형, 출산과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출생만 하면 김제시가 함께키워간다는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첫해 800만원부터 다섯째아이에 1,800만원 지원은 물론 내년부터는 다자녀 세대 중 셋째자녀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출생 축하 첫 도장, 아기 달력 지원, 75곳의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가맹점 운영, 다자녀 인증 앱 개발, 다자녀 우대문화 확산을 꾀하고 있다. /김제=백용규 기자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 성황리 마쳐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앙상블 콘서트'가 지난 14일 저녁 시민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졌다.

정음시에울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정음시와 서울시의 화합과 문화예술 발전,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으로 담담하게 시작된 공연은 아르방의 '베니스의 축제',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임스 스티븐스의 '천사를 위한 팡파르', 엘가의 '첼로협주곡',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8번'으로 이어지며 라이브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곡을 협연자와 함께 선보였다. /정음=박기수 기자

원광대 건축학과 박지혜 학생, 전북 건축문화상 대상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박지혜(사진) 학생이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전북도는 지난 7일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작 21점과 장려상 등 19점을 선정했다.

'흔적은 거리를 통해서'를 주제로 학생부문대상을 차지한 박지혜 학생 작품은 전주웨딩거리의 장소성 회복과 새로운 공유 공간 조성 프로젝트로 전주 웨딩거리의 역사적 가치와 유지해야 할 경관을 찾고, 회복해 거리 활성화를 모색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익산=임유정 기자



전주중산신협, 전주사회적경제박람회 행사 후원

전주중산신협은 지난 14일 '2021 전주사회적경제박람회'의 협력기관으로 나눔봉사 프로그램에 참석해 각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품들로 구성된 '나눔 한 상자'를 사랑의 택배차량에 상차하고 지역사회의 복지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주중산신협의 후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는 브랜드 홍보와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각 사회의 취약계층 160가구로 환원돼 사회복지에 공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전주중산신협 전호진 전무는 "이번 박람회가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체임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김제 평생학습관,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김제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60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기초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다음달 2일부터 25일까지 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 2회, 4주간 운영된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 인구 증가에 따른 디지털 기기 사용이 취약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만족도가 높아 지난 8월에 이어진 두 번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이다.

수강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화 063-540-2977 접수로 이뤄지며 모집인원은 15명이다. /김제=백용규 기자